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2년 6월 | ISSN 1225-9608
J Korean Soc School Health Vol. 25 No. 1, 133-142, June, 2012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 수 미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Effects of Suicide Ideation on Suicide Reports of Mass Media and Social Support in College Students

Sumi Ha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uicide reports by mass media and social support on suicide ideation for college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are 350 undergraduate students in one university. This study uses three questionnaire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Suicide Reports,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The SPSS/WIN 12.0 program i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biographical data are analyzed into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degrees of suicide reports, social support, and suicide ideation are calculated into Mean and SD. Moreover, the suicide ideation by suicide report and social support are analyzed by the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Results: This study reveals that college students have an average of 30 minutes to one hour news time a day (38.9%) and have at least one suicide report in a month (30.3%). 79.7% participants believe that the suicide report of mass media results in the cause of the copycat suicide. In terms of suicide report and suicide ideation, the types of mass media (F (4,340)=2.41, p<.05) and suicidal urge (F (1,340)=31.23, p<.01), respectively,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suicide ideation.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support and suicide ideation, whether college students have their mentors (F (1,328)=13.26, p<.001) and/or careres (F (1,328)=26.84, p<.001)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suicide ideation.

Conclusion: College students have higher suicide ideation at news by internet site rather than by radio, TV, and so on. Moreover, college students who have a suicide feeling in the last one year, have more suicide ideation than who have not. On the other hand, college students who have a mentor and carer tend to have less suicide ideation.

Key Words: Suicide ideation, Suicide reports, Social support, College students, Copycat effect

서 론

1. 이론적 배경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자살이다. WHO는 자살을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의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정진, 2009). 이러한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한 사회에서 자살의 증가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살을 사회적

Corresponding author: Sumi Ha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193 Mia-dong, Gangbuk-gu, Seoul 142-700, Korea.
Tel: +82-2-944-5026, Fax: +82-2-980-6200, E-mail: han@iscu.ac.kr

투고일: 2012년 6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5일

© 2012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뒤르켐의 연구 이후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자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연구를 보면 자살을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소득 분배 악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거나, 이혼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설명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다(김병철, 2010; 김효창, 2010).

1998년 IMF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시기 동안 자살사망률은 41.4%나 증가하였다(김효정과 정미애, 2010). IMF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8.4명에 달했으며, 남성의 자살률은 26.5명으로 여성의 10.3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금융위기를 지나며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자살률은 2001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OECD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약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6명으로 2007년(24.8명) 보다 1.2명 늘었다(배준성과 허태균, 2010).

한편, 최근 수 년 동안 잇달아 발생한 유명인의 자살은 일반인들에게 모방 범죄를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2004년 홍콩의 배우 장국영이 투신자살한 후 홍콩에서는 6명이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하였으며, 2008년 국내 여배우 최진실이 자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6명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그리고 2005년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 후 자살건수는 당초 2월 700명에서 3월 1,300명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고, 동일한 자살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2월 300건에서 3월 7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김인숙, 2009).

자살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를 보면 자살은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 등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사회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보면 우선 대중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병철, 2010; 김인숙, 2009; 정승민과 박영주, 2009). 특히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 역시 자살보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해 언론의 자살보도와 자살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는데, 자살보도와 실제 자살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는 1974년 필립스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신문이 자살보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특히 1면에 보도할수록 모방 자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을 유발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를 통해 특정 사회의 실제 자살 건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젊은이들이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자살 방법을 모방하여 자살을 한다는 의미의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들이 자살을 한 후 일반인들이 그들의 자살을 모방하여 자살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모방 자살(copycat suicide)은 개인의 사적인 결단, 사회적 무관심의 결과, 유전적인 소인 등과 같은 요인 이외에 타인의 자살이 계기가 되어 자살하는 경우를 뜻한다. 즉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할 때 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특정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모방 자살이 급증하는 것은 국내 언론의 유명인 자살 보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김인숙, 2009). 베르테르 효과 또는 모방 자살은 실제 인물의 자살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소설이나 영화 속 가상 인물의 자살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자살이 미디어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과학 연구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디어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모방 자살은 학문적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배준성과 허태균, 2010).

이와 같이 연예인 등 사회 유명인의 자살 이후 증가하는 일반인의 자살을 고려하여 자살의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주목하였으며, 대중매체가 직·간접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김인숙, 2009; 정승민과 박영주, 2009). 최근 국내 언론의 자살 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신문은 72%, 방송은 80.6%가 부적절하게 자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 2009; 배준성과 허태균, 2010). 우리나라 언론의 자살보도는 자살 원인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보도, 자살의 동기에 대한 흥미 위주의 추측성 기사 작성 등으로 수용자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뉴스나 연예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자살의 원인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자살에 대한 동기를 흥미 위주로 추측하고, 자살의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장례식에 조문 오는 연예인들을 집중 취재하고 생중계하는 등 연예인의 자살을 뉴스 상품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미디어를 통해 보고 배운다고 할 수 있다. 모방 자살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 극소수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며,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배준성과 허태균, 2010).

이처럼 신문이나 TV, 또 최근의 인터넷과 같은 언론의 자살 보도가 실제 자살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보도량, 보도 기간, 매체의 지명도 등이 자살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자살 기사를 크게 다루거나 자세하게 묘사할수록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자살 보도의 제목이 자극적이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 보도되었을 때 더 많은 후속 자살이 뒤따른다며, 일관되게 자살 보도의 베르테르 효과를 지지하고 있다(김병철, 2010).

물론 이러한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살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자살에 대한 강한 내적 억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살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미디어에 의한 반복된 자살보도는 자살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의 한 예로 연기자 안재환의 자살이 수십억 원의 부채로 인한 괴로움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자, 평소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던 학원장이 유서를 남기고 안재환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차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방 자살의 경우, 자살자는 안재환과 자신을 부채에 시달리는 괴로운 사람으로 동일시하였을 것이고, 미디어의 반복적인 자살 보도로 인해 자살자 본인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더욱 구체화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을 통해 거액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 강화물을 얻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배준성과 허태균, 2010).

스택에 의하면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사의 자살, 자살 관련 스토리의 사실 혹은 허구 여부, 신문 혹은 TV와 같은 보도 매체의 종류 등이 언론의 자살 보도가 후속 자살을 유발하는 모방 효과(copycat effect)와 관련된 변인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살 보도의 모방 효과는 시간과도 관련이 있어서 자살 보도 이후 처음 3일 이내에 효과가 정점에 달하며 이후 점차 감소해 대략 2주 정도면 효과가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김병철, 2010).

이처럼 자살 자체의 심각성과 자살 관련 보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중매체의 자살보도가 실제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중매체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와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또한 자살행동과 많은 관계가 있으며, 자살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Morano, Cisler, & Lemerond, 1993).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그리고 평가적 지지를 의미한다(차미영, 2010).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충족욕구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긴장된 환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이나 불안을 완화시킴으로써, 적응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으로 밝혀져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완충제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사회적 지지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관하여 가지는 두드러진 효과에는 완충효과와 직접효과가 있다. 완충효과모델 하에서 사회적 지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접효과모델 하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특별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본다(차미영, 2010).

지금까지의 수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자살생각이나 행동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Wilde 등의 연구(차미영, 2010)에서는 자살시도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가 적었으며 사망, 별거, 이혼 또는 유기로 인한 가족원의 상실, 특히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상실은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현준(2006)과 연현진(2008)은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연현진은 특히 부모지지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박우영(2008)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친구지지나 상담교사의 지지는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살시도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망, 별거, 이혼 또는 유기로 인한 가족원의 상실, 특히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상실은 자살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환경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자살시도, 자살수행과 같은 연속적 과정개념으로 보고 자살행동으로서 포괄하여 적용한다(김정진, 2009). 자살과 관련된 행위를 일컫는 자살행동이란 용어에는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서 자살생각은 일반적으로 자살시도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바, 자살생각은 실제로 자살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조향숙, 2009).

한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이 높은 집단이 더 낮은 집단보다 7배 이상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살위험을 예측하기 위하여 자살생각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함을 말해준다. 더구나 자살자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자살위험 혹은 자살행동을 연구할 때는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진, 2009).

2. 연구목적

지금까지, 국내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대상자가 주로 청소년이나 노인에 국한되어 있어 잠재적인 자살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 자살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평생 자살 생각율은 39.2%, 자살계획은 4.7%, 자살 시도율은 3.0%로 추정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간 청년층의 자살률은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임경은, 2010).

여기에서 자살 관련 행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신체적 건강 등이 더 불량하였으며, 우울이나 불안 증상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전문적 도움을 받은 경우는 매우 희박하여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문제였다(김정진, 2009). 대학생은 국가의 생산성 차원에서도 높은 고급 노동인력으로서 매우 귀중한 자원임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이다. 미국에서는 자살문제를 포함한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 등에 관심을 쏟고 있고, 일본에서도 대학정신보건협의회를 결성하여 대학생들의 정신보건에 대해 조사 및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비록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생각이라도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자살에 대한 예측지표로서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연구와 예방적 개입방안 모색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정진, 2009).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신중한 중재방안을 계획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인들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단일집단 사후 측정 설계(The one-group posttest design)를 적용하였다. 집단 간 사후 측정(A between-groups non-experimental posttest) 연구는 수정된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살보도에 관한 대중매체의 영향과 자살생각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대중매체의 종류와 자살충동여부 또는 자살충동경험을 독립변수로 보고,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he two-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고민상대유무와 간호상대유무, 경제적 지지와 사회단체 소속 및 참여를 독립변수로 보고,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he two-way ANOVA)을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취지와 응답을 원치 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준 후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요청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14일까지였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살보도

본 설문지는 배준성과 허태균(2010)의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및 김인숙(2009)의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 3자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12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본 설문지에서는 '평소 뉴스를 주로 접하는 대중매체'; '하루 평균 뉴스를 접하는 시간'; '자살 관련 보도의 접촉 빈도'; '대중매체의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지난 1년간 자살생각 유무' 및 '자살시도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태도 중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으로 '대중매체의 연예인 자살 보도는 자살 정황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연예인 자살 보도는 자살을 흥밋거리로 다루고 있다'를 포함하였으며,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묻는 질문으로 '최근 자살률이 급증한데는 대중매체의 책임이 있다'의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대중매체의 자살 보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견은 '대중매체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대중매체가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본 설문지의 신뢰도는 .92였다.

2) 사회적 지지

본 설문지(Park, Cho, & Moon, 2010)는 5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항목들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측면과 기능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들은 크게 정서적 지지와 물리적 지지로 구분된다.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의 방문이 잦은 편인가?"; "당신의 고민을 들어 줄만한 사람이 있는가?" 물리적 지지를 포함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아플 때 간호를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문항으로는 "현재 다음의 4가지 사회단체 중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가: 종교단체, 취미집단, 자원봉사활동, 친목회"가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다.

3)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79)이 개발한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를 신민섭 등(199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살시도 전의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검사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검사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SSI는 총 19문항의 3점 척도로 0~2점 까지 채점되며 총점은 0~38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욕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7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인 Cronbach's α=.8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그리고 자살보도, 사회적 지지 및 자살생각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살생각에 있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A two-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28.6세인데, 이는 사이버대학생들 중 30세 미만의 연령층을 주대상으로 한 것이다. 응답

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80명의 남성(22.8%)과 270명의 여성(76.9%)이 포함되었으며 학년별로 보면 3학년(42.9%), 4학년(26%), 2학년(16.9%), 그리고 1학년(14.3%)의 순이었다.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3.4%) 다음으로 천주교 및 불교(각각 17.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중(81.4%), 하(14.9%), 그리고 상(3.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분류	n (%)
성별	남성	80 (22.8)
	여성	270 (76.9)
학년	1학년	50 (14.3)
	2학년	59 (16.9)
	3학년	150 (42.9)
	4학년	91 (26.0)
경제수준	상	13 (3.7)
	중	285 (81.4)
	하	52 (14.9)
계		350 (100.0)

2.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우선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평소 뉴스를 주로 접하는 대중매체는 인터넷 포털(51.5%)과 TV (36.6%)이며, 하루 평균 뉴스를 접하는 시간은 30분~1시간(38.9%)과 10~30분(36.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관련 보도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 달에 한번(30.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주일에 한번(23.7%), 1주일에 한번(22%) 순이었다. 반면 하루에 한번 자살 관련 보도를 접한다는 응답자도 7.1%에 이르렀다.

한편 응답자의 대부분(80.0%)은 대중매체의 자살보도가 모방 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6명(27.4%)이었고, 실제로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명(16%)이었다.

또한 '대중매체의 연예인 자살보도는 자살 정황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대중매체의 연예인 자살보도는 자살을 흥밋거리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각각 80.3% 및 74%의 응답자들이 동의(51.7%; 49.4%) 혹은 매우 동의(28.6%; 24.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표 2>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변인	항목	n (%)
뉴스 접하는 대중매체	라디오	10 (2.9)
	TV	128 (36.6)
	신문	28 (8.0)
	인터넷	179 (51.1)
	기타	5 (1.4)
하루 평균 뉴스시간	10분 이하	43 (12.3)
	10~30분	128 (36.6)
	30분~1시간	136 (38.9)
	1~2시간	39 (11.1)
	2시간 이상	4 (1.1)
자살보도 노출빈도	하루에 한번	25 (7.1)
	3~4일에 한번	59 (16.9)
	1주일에 한번	77 (22.0)
	2주일에 한번	83 (23.7)
	한달에 한번	106 (30.3)
모방자살 영향 여부	예	280 (80.0)
	아니오	70 (20.0)
1년간 자살생각	예	96 (27.4)
	아니오	254 (72.6)
자살시도 경험	예	56 (16.0)
	아니오	294 (84.0)
너무 자세한 자살보도	전혀 동의안함	3 (0.9)
	동의안함	18 (5.1)
	보통	48 (13.7)
	동의함	181 (51.7)
	매우 동의함	100 (28.6)
흥밋거리 기사	전혀 동의안함	8 (2.3)
	동의안함	33 (9.4)
	보통	50 (14.3)
	동의함	173 (49.4)
	매우 동의함	86 (24.6)
자살률에 대한 대중매체 책임	전혀 동의안함	5 (1.4)
	동의안함	14 (4.0)
	보통	68 (19.4)
	동의함	190 (54.3)
	매우동의함	73 (20.9)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전혀 동의안함	0 (0.0)
	동의안함	11 (3.1)
	보통	27 (7.7)
	동의함	170 (48.6)
	매우 동의함	142 (40.6)
자살보도 권고기준 강화	전혀 동의안함	1 (0.3)
	동의안함	9 (2.6)
	보통	44 (12.6)
	동의함	175 (50.0)
	매우 동의함	121 (34.6)
법적 규제	전혀 동의안함	6 (1.7)
	동의안함	14 (4.0)
	보통	54 (15.4)
	동의함	175 (50.0)
	매우동의함	101 (28.9)

났다. '최근 자살률이 급증한데는 대중매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대중매체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75.2%, 89.2%의 응답자들이 동의(54.3%; 48.6%) 혹은 매우 동의(20.9%; 40.6%)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대중매체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84.6% 및 78.9%의 응답자들이 동의(50%; 50%) 혹은 매우 동의(34.6%; 28.9%)하고 있다.

3. 자살보도와 자살생각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와 자살충동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평소 뉴스를 주로 접하는 대중매체'와 '지난 1년 동안 자살충동의 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2 Factorial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3을 보면, 대중매체의 종류와 자살충동 여부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F(4,340)=1.44$, $p=.222$). 그러나 주된 효과에서 대중매체의 종류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340)=2.41$, $p<.05$). 또한 자살충동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340)=31.23$, $p<.001$). 각각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로 인터넷 포털 5.60±4.22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학생들이 다른 매체(라디오, TV, 신문, 기타)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학생들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 8.55±5.73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2.78±2.93에 비해 유의미하게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난 1년 동안 자살충동 여부'와 '자살시도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2 Factorial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살충동 여부와 자살시도 경험 여부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F(1,346)=1.88$, $p=.171$). 그러나 주된 효과에서 자살충동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346)=87.67$, $p<.001$). 그리고 자살시도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346)=43.01$, $p<.001$). 각각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한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9.00±6.36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3.48±3.67에 비해 유의미하게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5×2 요인변량분석, 대중매체 종류와 자살충동여부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의 차이

변수	분류	자살생각 M±SD	F	p
대중매체 종류	라디오	2.89±2.78	2.41	.049
	TV	4.93±5.22		
	신문	3.85±4.03		
	인터넷	5.60±4.22		
	기타	4.20±5.25		
자살충동 여부	있음	8.55±5.73	31.23	<.001
	없음	2.78±2.93		
종류*여부			1.64	.222

4.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민을 들어 줄만한 사람이 있는지'와 '아플 때 간호를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2 Factorial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4를 보면, 고민상대 및 간호상대 유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328)=.66$, $p=.418$). 그러나 주된 효과에서, 고민상대 유무에 따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328)=13.26$, $p<.001$). 또한 간호상대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328)=26.84$, $p<.001$).각각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민을 들어 줄만한 사람이 있는 학생들(3.21±3.15)과 아플 때 간호를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 학생들(3.12±3.06)은 이러한 대상들이 없는 학생들 6.79±5.42; 7.23±5.30에 비해 유의미하게 자살생각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두 번째,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와 '사회단체 중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2 Factorial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지원자와 사회단체 소속여부 간에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F(1,328)=56.85$, $p<.05$). 즉, 경제지원이 없고 시민단체에 활동하지 않은 그룹이 가장 높은 자살생각(M=6.40)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지원이 있으며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그룹이 가장 낮은 자살생각(M=3.15)을 지지고 있었다. 또한 주된 효과에서, 경제지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328)=13.72$, $p<.001$). 이 외에도 사회단

체 소속여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328)=8.77p<.05$). 다시 말해서 종교단체, 취미집단, 자원봉사활동, 친목회 등의 사회단체 중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4.86±4.70)은 사회단체 중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3.44±3.45)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었다〈표 6〉.

<표 4> 2×2 요인변량분석, 자살충동 여부와 자살시도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의 차이

변수	분류	자살생각 M±SD	F	p
자살충동 유무	있다	8.81±6.35	87.67	<.001
	없다	2.78±2.93		
자살경험 유무	있다	9.00±6.36	43.01	<.001
	없다	3.48±3.67		
충동*경험			1.88	.171

<표 5> 2×2 요인변량분석, 고민상대 및 간호상대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의 차이

변수	분류	자살생각 M±SD	F	p
고민상대 유무	있다	3.21±3.15	13.26	<.001
	없다	6.79±5.42		
간호상대 유무	있다	3.12±3.06	26.84	<.001
	없다	7.23±5.30		
고민*간호			0.66	.418

<표 6> 2×2 요인변량분석, 경제지원 및 사회단체 참여에 따른 집단 간 자살생각의 차이

변수	분류	자살생각 M±SD	F	p
경제지원 유무	있다	3.25±3.23	13.72	<.001
	없다	4.65±4.50		
사회단체 참여유무	있다	3.44±3.45	8.77	<.001
	없다	4.86±4.70		
지원*단체			4.13	.043

논 의

본 연구는 우선 자살보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대중매체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대학생들은 다른 매체(라디오나 TV 등)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학생들에 비해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평소 다음,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주로 뉴스를 접하며(51%), 이러한 매체가 자살생각을 유도한다고 응답한 배준성 등(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살 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김병철(2010)의 연구결과와도 다소 일치하는데, 본 연구에서 신문의 자살 보도량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잠재적 자살자의 자살 상담 건수에 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상담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43.1%가 자살 보도에 나오는 자살자 혹은 자살 행위에 대해 이해심이나 공감을 표현하고 있고, 특히 7.1%는 자살 충동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잠재적 자살자의 경우 자살 보도에 등장하는 자살자의 자살 방법과 원인, 장소, 나이, 성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예인의 자살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는데, Pirkis 등(2006)은 호주의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와 실제 자살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TV가 라디오나 신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살 관련 대중매체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지닌 자살위기의 본성에 대한 Chiu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지난 12개월 이내에 자살을 고려해보았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현재에도 이러한 자살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 자살생각을 했던 69%의 대학생 및 63%의 대학원생은 현재에도 자살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연구결과(조향숙, 2009)와 일치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 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정진(2009)의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결과에서 자살시도경험이 자살위험성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익명성을 유지한 채 메시지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잠재적 자살자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생각 혹은 감정, 의견들을 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자살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고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 대학생들과 아플 때 간호를 해 줄만한 사람이 곁에 있는 대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대학생들에 비해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단체, 취미집단, 자원봉사활동, 친목회 등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들은 그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Park 등(2010)의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낮으면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한편, 경제적 지지가 낮으면 중년여성의 자살생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매체의 자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별 생각 없이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며, 제목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자살이나 자살자에 대해 이해심을 표출하거나 공감을 표하는 등 자살에 대해 암묵적 동조를 하는 듯한 태도가 기사 곳곳에 배어 있어 주요 일간지 및 뉴스의 보도 태도는 잠재적 자살자로 하여금 실제 자살을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자살 보도 연구는 대부분 당위적 주장 혹은 추정에 그치고 있고 자살 보도의 어떠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주고 있다(김연종, 2005).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대학교 환경으로의 전환점을 통해 미래의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주어짐으로서 복잡하고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으로 정신적 건강을 위협받거나 충동적인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김효정, 정미애, 2010). 따라서 이들에게 자살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요인들은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살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연구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수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수집은 가족의 자살이라는 인정하기 힘든 상황을 재차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심적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에 응하는 가족 구성원을 만나기 어렵다(김효창, 2010).

여기에 대해 이제부터는 청소년이나 노인의 자살 문제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자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며, 나아가 이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 국가의 주축이자 미래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층의 자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보도매체는 자살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대학교 내의 학생생활연구소나 상담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적 지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시도를 한 사람은 자살생각을 반복하고,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한 자살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측은 대학생들에게 멘토링(mentoring) 제도나 취미 및 동호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대학생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철(2010). 자살 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8**(1), 41-63.

김연종(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6), 140-166.

김인숙(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자 효과: 언론의 연예인 자살 보도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5-36.

김정진(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8), 413-437.

김효정, 정미애(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 16**(1), 43-50.

김효창(2010). 자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165-178.

노영선, 전홍진, 이해우, 이효정, 한성구, 함봉진(2006). 대학생들의 우울장애에 관한 연구: 유병률, 위험요인, 자살행동 및 기능장애. **한국임상심리학회, 45**(5), 432-437.

배준성, 허태균(2010).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사회학습효과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179-195.
손정남(2007).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에 대한 판별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6**(3), 267-275.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299-314.
임경은(2010). 2009 사회조사(인터넷조사)를 통해 본 청년 자살충동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23**(3), 5454-558.
정승민, 박영주(2009).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 153-182.
조향숙(2009). 일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자녀건강학회지, 12**(1), 3-14.
차미영(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춘천.
Chiu, S., Ko, H., & Wu, J. Y. (2007). Depression moderated the effect of exposure to suicide news on suicidality among college students in Taiwa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7*(5), 585-592.
Hong, Y.S., & Jeon, S. Y. (2005).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19*, 125-149.
Morano, C., Cisler, R., & Lemerond, J. (1993).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urs: Loss, insufficient familial support and hopelessness. *Adolescence, 28*(112), 851-865.
Park, S., Cho, S., & Moon, S.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Role of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 389-397.*